

2017년 9월 23일 시행 지방직 7급 D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남부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선우쌤의 총평

2017년 지방직 7급은 국가직 7급보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시대사 출제 비율은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6문제, 통합문제(독도) 1문제였고, 단원별 출제비율은 선사 및 초기국가 1문제, 정치사 10문제, 사회사 3문제, 경제사 3문제, 문화사 3문제였다. 가야사나 독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부각되는 주제였고, 나머지 문제는 공무원 9급·7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주제들이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난도 상(上)의 문제는 없었고, 전시대에 걸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고 성실하게 기출문제를 파악한다면 80점은 무난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에서의 합격권 점수는 직렬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 행정직의 경우 90점 정도면 합격권으로 예상된다.

선우쌤의 TIP

향후 하반기 시험과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본서를 통해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이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출문제집을 통해 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형문제를 통해 시간 안에 문제 푸는 훈련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2017년 최근 문제가 자료 제시형(도표, 지도 등)· 사료 제시형 문제와 함께 사건 순서 나열형 문제와 계단식 선택지 문제가 강세인 점, 그리고 현대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흐름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이후 정확한 암기를 해두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7년 한국사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	근대사회 태동	근대사회 전개	민족독립운동기	현대사회	통합
	1	삼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 발해 • 대가야	• 골품제도와 화랑	• 대외무역 물품					
		• 몽골 침입기 발생 사건	• 고려 사회모습						
		• 세종 업적 • 수령 칠사(七事)		• 과전법					
			• 신분제 변화	• 후기 경제	• 정약용의 3대저서				
		• 활빈당 • 의병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역사학		
		• 좌우합작 7원칙(4조 친일파조례건)					• 시기별 교육		
		• 독도							

문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조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 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사회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운, 이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 | | | |
|---|---------|---------|---------|
| | ㉠ | ㉡ | ㉢ |
| ① | 민족주의 사학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 ② | 실증사학 | 민족주의 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③ | 민족주의 사학 | 실증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④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민족주의 사학 |

☞ 답 ①

<정답 찾기> ㉠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 사회경제 사학자들은 역사 발전의 핵심을 물질로 보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역사 발전을 세계사적인 역사 발전 법칙과 동일한 범주에서 파악함으로써 일제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청구 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어용 학자들의 왜곡된 한국학 연구에 반발하여, 문헌 고증을 통해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사학을 바탕으로 진단학회(1934)를 조직하였다.

문 2.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망이·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
- ㄴ.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하였다.
- ㄷ. 황룡사 구층목탑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 ㄹ.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 ㅁ.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ㅁ |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 답 ④

몽골의 침입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정답 찾기> ㄷ. 몽골 2차 침입때(고종 19년, 1232)에 대구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고, 몽골 3차 침입(1235~1239)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ㄹ. 몽골의 2차 침입 때 적장 살리타가 처인성(용인)에서 승려 김윤후에게 사살되면서 몽골군은 철수하였다.
ㅁ.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부처의 힘으로 몽골 침략을 물리치고자 조판한 것으로, 강화도에 대장도감, 진주(남해)에 분사도감을 설치하고 고종 23년(1236, 최우)에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 최항)에 완성하였다.
<선지 분석> ㄱ. 망이·망소이의 난(1176, 정중부 집권기), 만적의 난(1198, 최충현 집권기)
ㄴ. 1270년 고려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강화도의 무인들에게 몽골에 투항할 것과 개경 환도를 요구하자 삼별초가 반대하면서 삼별초의 항쟁(1270~1273)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 3.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였다.
- ㄴ.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
- ㄷ.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 ㄹ.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ㄹ | ④ ㄷ, ㄹ |

☞ 답 ②

<정답 찾기> ㄱ. 고려에서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재가할 경우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하였다.

ㄴ. 고려 시대 상속의 대상이 된 재산은 노비와 토지, 곡물 등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비와 토지였다. 상속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들 딸 구분 없이 자녀 균분 상속이었다.

<선지 분석> ㄴ.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서 자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하였다.

ㄷ. 고려에서는 노비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겨 남편 쪽에서 상속된 노비와 아내 쪽에서 상속된 노비를 구분하여 호적에 기재하였다.

문 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5월이며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 ②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 ③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기술이 발달하였다.

☞ 답 ②

제시된 자료는 '삼한'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찾기> ② 삼한 사회는 제사와 정치권이 분리된 사회로, 제사장인 천군(天君)은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 솟대)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담당하였다.

<선지 분석> ① 부여, ③ 옥저, ④ 동예

문 5.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 ② 1970년대 - 처음으로 고등학교 시험이 연합고사로 바뀌었다.
- ③ 1980년대 -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 ④ 1990년대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 답 ③

<정답 찾기> ③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외 과외 해소 대책으로 과외 전면 금지,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졸업 정원제 등이 실시되었다.

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을/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활(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 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 ① 유학에 힘쓰게 한다.
- ② 도적이 없게 한다.
- ③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
- ④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

☞ 답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수령의 업무인 '칠사(七事)'에 대한 내용으로 ㉠에 해당

하는 것은 '교육의 진흥'이다.

조선의 수령 7사(守領七事)	
• 농업의 장려	• 교육의 진흥
• 재판의 공정	• 호구의 증식
• 부역의 균등	• 군대의 정비
• 치안의 확보(간사하고 교활한 무리 제거)	

문 7. 밑줄 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서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發)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
4.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 (후략)

- ①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②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 ③ 초대의장으로 여운형이 선임되었다.
- ④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 답 ③

제시문은 '좌우합작 7원칙'으로 밑줄 친 입법기구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1946. 12.)'이다.

<정답 찾기> ③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김규식을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선지 분석> ① ④ 입법의원에서 통과시킨 중요 제정 법령으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이다. 기타 <남조선과도 입법 의원법>,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제102호법령>의 제7조 개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입법의원선거법>, <조선임시약헌 朝鮮臨時約憲>, <사찰령 폐지에 관한 법령>, <공창제도 등 폐지령>, <미곡수집령> 등이 있었다.

②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미군 사령관 하지가 임명한 관선 의원(45명)과 간접 선거로 선출한 민선 의원(45명)을 선발하였으며, 관선 의원에는 좌우합작 위원회를 비롯한 중도계 인사들이 임명되었고, 민선 의원은 대부분 이승만계와 한국 민주당계가 당선되었다.

문 8. 세종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ㄴ.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 ㄷ.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였다.
-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 ㅁ.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답 ③

<정답 찾기> ㄱ. 쓰시마 섬 정벌 [이종무, 세종 1년(1419)]

ㄷ. 6진(경흥·경원·중성·운성·회령·부령) 개척 [김종서, 세종 16년(1434)]

ㄹ. 최윤덕, 여진족(이만주) 정벌(세종 15년, 1433)

ㅁ. 계해약조(세종 25년, 1443)

<선지 분석> ㄴ. 삼포왜란(1510, 중종 5년)

2017년 9월 23일 시행 지방직 7급 D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남부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문 9.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사헌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의 토지가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무(畝)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횡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부터 종실고신·조정·문무관의 토지, 외여·진·역·원·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 ①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 ②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 ③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 ④ 과전 지급 지역은 경기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직, 현직 관리였다.

☞ 답 ④

제시된 자료는 고려말 토지 제도의 문란에 대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도전·조준 등이 과전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정답 찾기> ④ 과전법의 지급 지역은 경기에 제한되었고, 전직·현직 관리들은 모두 18과로 나뉘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과전을 지급하였다.
<선지 분석> ① 전시과는 고려 경종 때 처음 실시하여 문종 때 완성되었다.
② 과전법은 권문세족이 축적한 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건국한 신진 사대부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문 10. ㉠~㉣에 들어갈 책의 이름이 옳은 것은?

- (㉠)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 (㉡)는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일종의 수신교과서이다.
- (㉢)는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 | | | | |
|---|------|------|------|
| | ㉠ | ㉡ | ㉢ |
| ① | 경제유표 | 흙흙신서 | 목민심서 |
| ② | 흙흙신서 | 목민심서 | 경제유표 |
| ③ | 목민심서 | 경제유표 | 흙흙신서 |
| ④ | 경제유표 | 목민심서 | 흙흙신서 |

☞ 답 ④

정약용의 3대 저서는 『경제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로 『경제유표』는 중앙 정치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책, 『목민심서』는 지방관(목민관)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책, 『흙흙신서』는 형벌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문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다른 나라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시급히 방곡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피할 것

- 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 ②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 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 ④ 을사늑(조)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 답 ②

제사 자료는 활빈당의 ‘대한 사민 논설 13조’(1900) 내용이다.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한 후 농민군은 1895~1896년 의병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이후 흩어져 화적(火賊)으로 지냈다. 이들은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에 희망을 걸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1899년부터 영학당, 남학당, 북대, 남대, 활빈당 등의 이름으로 활약하였다. 그중 활빈당은 ‘홍길동전’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 평등의 실현, 빈부 격차의 타파, 국정 혁신을 목표로 1900년 황성신문에 ‘대한 사민 논설 13조’를 발표하였다.

<정답 찾기> ① 신간회(1927)에 대한 설명이다.

문 12.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신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속성은 김씨로 태종무열왕이 8대조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의 골품은 진골이고 ... 아버지는 범천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得亂)이 되었다.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
- (나) 최치원은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일컬었다. ... 실로 이는 삼교(유·불·선)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 한다. 『삼국사기』

- ① (가) - 개인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 ② (가) -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 ③ (나) - 진흥왕 때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 ④ (나) -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 답 ④

(가) 골품제도, (나) 화랑도 제도

<정답 찾기> ④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 ㄷ.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서울)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 ㄹ.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 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답 ②

<선지 분석> ㄴ. 3·1운동이후 국내외 정부를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내외를 연하는 비밀 지방 행정 체道人 연통제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문 14.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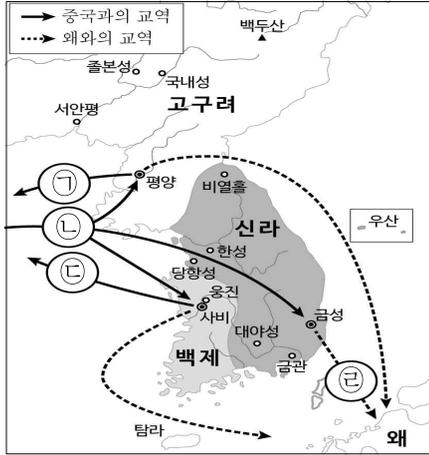
- 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 ② 『금양잡록』, 『농서집요』 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 ③ 광산 경영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 답 ②

<정답 찾기> ② 조선 전기 농서이다. 『금양잡록』은 조선 성종 때 금양 지방에서 강희맹이 직접 경험하고 들은 농경 방법을 모아 저술한 것이고, 『농서집요』는 1517년(중종 12) 8월에 편찬된 농서를 필사한 것으로, 16세기 전반의 한국 농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유일한 농서이다.

2017년 9월 23일 시행 지방직 7급 D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남부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문 15. 다음은 삼국의 주요 대외 교역 물품을 표시한 지도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 도자기, 비단, 서적
- ② ㉡: 인삼, 직물류
- ③ ㉢: 금, 은, 모피류
- ④ ㉣: 곡물, 비단

☞ 답 ④

- ① 도자기, 비단, 서적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다.
- ② 인삼, 직물류는 백제가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다.
- ③ 금, 은, 모피류는 고구려가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었다.

<플러스 정리> 삼국의 대외 무역



문 1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ㄴ. 중앙 관제로 당과 비슷한 3성 6부제를 시행하였다.
- ㄷ.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도' 라 하였다.
- ㄹ. 무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고,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답 ③

<선지 분석> ㄹ. 발해 문왕의 업적이다.

문 17. 조선 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 ②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 ③ 역관은 외래문화의 수용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④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 답 ②

<정답 찾기> ② 영·정조 시기에 서얼 일부가 청요직 진출하였고, 특히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 같은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기도 하였다. 철종 때 들어와 신해허통으로 서얼은 청요직 진출이 완전 허용되게 되었다.

문 18. 밑줄 친 '가라(가야)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가야라고도 한다)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 15, 6세였음에도 중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귀당 비장으로 삼았다. ...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삼국사기』

- ①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있다.
- ② 나라가 망할 즈음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 ③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 교역을 중계하였다.
- ④ 국주(國主)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

☞ 답 ②

밑줄 친 '가야국'은 고령의 대가야이다.

- ② 대가야의 우륵은 진흥왕 때 산라에 귀화하여 국원소경(충주)에서 신라 음악 발전에 기여하였다.

<선지 분석> ①③④ 김해의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 (㉠)을/를 관할한다.

- ① 『세조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 ②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로 기록하였다.
- ③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 ④ 1952년 UN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 답 ④

제시문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1900)이다. ㉠에 해당되는 말은 석도(石島)로 독도에 해당된다.

<정답 찾기> ④ 1952년 ‘대한민국 인접 해상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국제 해양법 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 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문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 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 ①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 ②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③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
- ④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 답 ①

<정답 찾기> ① 최익현은 을사의병 때, 이인영은 정미의병 때 의병장으로 모두 양반 출신이다.

<선지 분석>

- ② 지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860년에 발생한 동학은 1905년 순병회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 ③ 최익현은 태인에서 유생을 모아 의병을 편성하고 순창에 입성하여 관군과 대치하게 되자, ‘동족끼리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 하여 싸움을 중단하고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 ④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제(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